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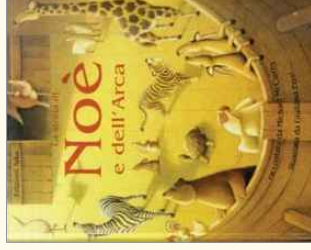
6 **한은자** (상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성경 그림책에 대해 소개한다면**
- 성경 그림책은 그림책의 형태로 그려질 때는 재화(retelling)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한다는 뜻의 재화(retelling)은 원래 구전된 옛 이야기가 채록되고 글로 쓰여지는 과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 성경 안의 감추어진 의미를 어린이 독자에게 전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림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나라의 기독교 그림책 출판에 관한 것입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의 그림책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좋은 외국 그림책이 다수 번역되고 국내의 그림책 글, 그림 작가들이 발굴되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 그림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독교 어린이 도서 시장의 열악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그림책을 수집하면서 외국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 수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재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작가와 어린이 독자가 가장 선호하는 성경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플롯도 매우 극적이면서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마권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은 거의 다 한번쯤 이 이야기를 그려내 있을 정도입니다.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드리는 기도, 홍수 전에 식물들의 씨를 받아서 홍수 후 키워낸 노아의 아네 이야기 등



허브러 구전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벌레의 눈으로 바라본 노아의 이야기, 방주에 들어가 지 못한 가엾은 동물들의 이야기 등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있고 고전적인 무관화부터 현대의 컴퓨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매체도 다양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작가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으므로 성경 그림책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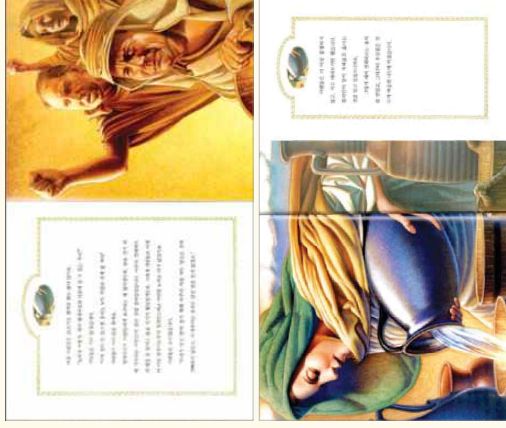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마이클 매카시가 재화하고 지올리아노 페리가 그린 「노아의 방주 이야기 (La storia di Noe e dell' Arca)」입니다. 대각선 구도가 지배적인 이 작품은 노아 가족의 하나님과 이야기의 역동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의 가족만은 평화롭게 노동하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우라는 명령을 받은 후 여덟 식구는 모두 힘을 합쳐 방주를 짓고, 방주가 완성되자 동물들은 돌썩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옵니다. 비가 그친 후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얼마 후 세 아들 부부는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성경 그림책 작가들이 노아의 신실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노아 가정의 여덟 식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가는 모든 장면에서 빠짐없이 여덟 사람을 그려 넣음으로서 독자의 시선을 노아로 인해 거려졌던 다른 일곱 식구의 신실한 신앙으로 향하게 합니다.



기독교 그림책의 두 번째 유형은 은혜, 구원, 용서, 사랑, 회개, 인연과 같은 기독교 주제를 다루는 창작 그림책입니다. 이 범주에서는 「너는 특별하단다」로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의 작품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의 작품은 성경의 진리를 비유로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유가 기독교 그림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3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손에 들어온 성경은 비유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유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비유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비유로 말하라〉에서 비유가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동참하게 된다.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는 은밀하게, 비유는 듣는 사람을 끌어들이는다. ... 비유(parable)은 문자 그대로 ‘의 절에 던져진 무엇’ 즉 para(곁에)와 bole(던져진)이 합성된 것인데, 그것을 본 우리의 첫 반응은 “이게 여기에 왜 있는 거야?”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상상한다. ... 비유는 보통 새로운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간과한 것을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혹은 우리가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연루되고 만다.”

맥스 루케이도가 글을 쓴 「토비아스의 우물은 비유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출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풍부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들이랑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물을 나눠줄 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와 출리양은 중 엘제비르에게 우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제비르는 처음에



는 주인처럼 사람들에게 물을 마음껏 가져가도록 했으나 마을사람들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아가 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주기로 하고, 이리 식으로 점점 더 착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기준을 높여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 중 물을 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엘제비르의 마음에 들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고, 엘제비르는 그에게도 트집을 잡으며 우물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친척히 벗고 자신이 물 주인의 아들 출리양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뛰고 엘제비르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못된 종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출리양은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어리만큼 좋 누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제비르는 용서를 받았고 마을 사람 모두 우물물을 마음껏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야기에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지요. 제목을 읽고 첫 장을 열어 읽기 시작하자 본당에 가득 찼던 성탄절 전야의 들뜬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부터 유치부 꼬마들까지 온 교인이 모두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동안 비유의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그들은 엘제비르와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각각의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행사가 끝난 후 여러 교인들이 다가 오셔서 은혜를 받았노라 인사하시고 손자에게 선물해주었다고 책 제목을 묻는 분도 계속해서 무척 감사하였지요.

올 성탄절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직 시간이 있다면 기독교 그림책을 찾아서 크리스마스 그림책이나 좋은 성경 그림책을 찾아 온 교우들과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혹은 손자나 자녀들에게 성경 그림책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 학교와 본당에서 혹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 기독교 그림책이 임혀지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만약 기독교 그림책에 애정을 갖고 좋은 작품을 추천하고 구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기독교 출판사와 그림책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그들의 달란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는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Merry Christmas!



형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시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책의 이해 1, 2」, 「세계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의 그림책」, 「그림책과 예술교육」, 「출가문 그림책 쓰기」가 있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